

세계수영대회, 성공의 첫 단추는 청결입니다

광주시 시가지 청소대책 추진 경기장 등 주요지역 49곳 지정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도 펼쳐

"D-50일... 광주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성공의 첫 단추는 청결입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오는 23일로 개막 50일을 남겨두게 된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국

내의 손님들에게 '클린광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경기장 주변과 시가지 청결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주요 청소지역 49곳(경기·훈련장5, 숙박20, 관광지7, 취약지17)을 지정하고 환경미화원, 청소활동가, 자원봉사 등 인력과 수거차량, 진공청소차 등 장비를 집중 투입해 청결활동을 펼친다. 또한, 대회를 전후해 청소기간을 사전·중점·마무리 청소 3단계로 나눈다. 대회 전 시기에는 광주공동체 범시민 시가지 대청소와 손

님맞이 청결활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회가 임박한 시기와 대회기간인 6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청소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특별 기동순찰반 운영 등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 신속한 수거체계를 갖춰 처리한다. 대회 종료 후 5일간은 대회기간 더럽혀진 광주 시가지 전반에 대해 자치구에서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등의 홍보활동을 펼친다.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광주공동체 범시민 청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공서별 담당 청소 구역을 지정하고 기관별 계획에 따라 청소 주변 및 담당구간에 대해 일제 대청소를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계수영대회를 계기로 광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광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내가 쓸기'와 '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구,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원도심 공동화 문제 등 논의

광주시 동구에서 30번째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 동구는 "지난 17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광주·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의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모여 '제30차 전국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19일 밝혔다. 참석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윤종서 부산 중구청장·류규하 대구 중구청장·홍인성 인천 중구청장·박용갑 대전 중구청장·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등 모두 7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도시 중심구청 간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인 원도심 공동화문제 등에 대해 대응·발전방안을 공

동으로 모색하고 우호증진, 교류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중심공동체·인문도시 조성, 마을복지거점센터 구축 등 역점시책을 소개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했다. 본회의 이후 7개구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옛 전남도청 앞 5·18민중항쟁알림탑에서 추모헌화 행사를 가졌다. 서울·부산·인천 등 3개 구청장은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5·18전야제와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5·18 추모기간에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민주·평화의 오월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인권헌장 선포 7주년 내일 5·18광장서 기념행사

광주시는 제54회 시민의 날인 21일 오후 서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인권헌장 선포 7주년 기념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인권헌장은 지난 2012년 제47회 시민의 날에 시민대표 21명이 인권도시 광주의 미래를 담아 5장 18개조(전문 518자) 구성된 헌장이다. 이날 행사는 시민과 함께 광주인권헌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문꽃기회 회원 3명이 광주인권헌장 전문을 낭독한다. 행사는 광주인권 헌장을 주역함으로써 표현한 '5색 주먹밥 만들기', 부채로 꾸며보는 '인권의 의미를 담아요'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형호 기자 khh@



제1기 광주시민노동학교 졸업식 지난 16일 광주시의회에결의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광주시민노동학교' 졸업식에서 참가자들이 수료증을 들고 노사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졸업식에는 1장부터 7장까지 모두 수강한 104명의 졸업생과 정정제 행정부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병규 사회연대일자리특보 등이 참석했다.

5·18의 진실 증언해줘 고맙습니다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 폴 코트라이트씨 면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의 참상을 증언한 미국인 폴 코트라이트씨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이 부시장은 지난 17일 시청 3층 문화경제부시장실에서 폴씨와 면담하고 5·18의 진실을 알리기 증언을 해준 용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 폴씨는 1980년 당시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나주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5월19일 광주 터미널에서 군인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로, 최근 광주일보 인터뷰(2019년 5월14일자 1·3면)를 통해 관련 증언과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폴씨는 자신이 경험한 5·18을 바탕



으로 '광주의 목격(가제)'이라는 책을 집필 중이다. 이 부시장이 책 집필 동기를 묻자, 폴씨는 "그 당시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의미가 빛바래고 있는 현재 시대에 당시의 처절한 경험을 제대로 알려주고 책을 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첫 환자...야외활동 진드기 주의보

SFTS 양성 판정...긴옷 착용하고 기피제 사용 당부

광주에서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하면서 광주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환자 A씨가 광주 인근지역 야산을 다녀온 후 발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A씨는 충남, 전북, 강원 등에 이어 올 들어 5번째 SFTS 환자라며, 시민들이 야외 활동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FTS는 주로 4~11월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잠복기 4~15일 이후 38도 이상의 고열, 구토,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이상 등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871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74명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6년 1명, 2017년 2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명(2016년 발생자)이 사망한 바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위에 눕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도움이 된다. 또 야외 활동 시 입었던 옷은 반드시 털어 세탁하고 귀가 후 즉시 목욕을 해야 하며 머리카락, 귀 주변, 무릎 뒤 등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광주시 북구가 민생경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북구는 "광주시가 실시한 '2019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결과에서 북구내 11개 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 3억 5900여 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기술개발, 시제품·홈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교육훈련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지난 17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사회적기업(인중 8, 예비 3)과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연간 지원한도(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비 지원이 구체적 인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과 보조금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사업 안내, 컨설팅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센터, 22일 최진석 교수 인문학 강연

광주트라우마센터의 대중강좌 '치유의 인문학' 5월 강좌가 22일 오후 7시 광주기독교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열린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독립적 주체의 치유 능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최 교수는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로 인문 학교인 '건명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로는 '탁월한 사유의 시

선', '인간이 그리는 무늬',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등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는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치유의 인문학'은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강연 일정과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tnt.gwang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01-1974. /김형호 기자 khh@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0만원
- 급매 - 1억1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